

문화광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물건을 고를 때 기능과 성능이 같은데 가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왜 다르냐고 물어보면 단지 브랜드 때문이라고 한다.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 별이라는 것이다. 그림도 이와 비슷하다. 195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60달러에 낙찰됐던 '살바토르 문디'는 2011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판정받았다. 그러자 진위 논란 속에서도 2017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030만 달러에 낙찰됐다. 이처럼 대가가 그랬다고 인정받는 순간, 작품 가격은 높아진다. 즉 예술가의 이름이 작품

예술가의 이름

소장자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위작이 끊임없이 제작되는 이유도 누구의 작품이나 작품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이름이 때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영국의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븐은 찾아가기 힘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고향뿐만 아니라 유명 예술가가 살았던 집, 작업실, 즐겨 찾던 카페 등도 이름난 관광지가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우리나라 도시들도 작고한 유명 예술가의 이름을 빌려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자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도 그곳에 잠시 살았던 화가 이중섭의 이름을 거리에 붙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이중섭이 살았던 집을 방문하고 이중섭 거리에서 관광을 즐긴다.

작품의 예술성이 높으면 예술가가 유명해질 것 같지만, 예술성과 명성은 비례관계가 아니다. 어떤 예술가는 작품이 좋아도 이름을 얻지 못한다. 널리 알려진 예술가의 작품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작품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니다. 미국 미술 포털사이트 아트시의 편집자인 캐시 레서의 글에 따르면 예술가의 유명세는 창의성과 독창성이 아닌 친구 때문이다. 예술가가 죽고 한참 뒤에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도 있으니, 친구 외에도 예술가에게 명성을 가져다주는 요소는 다양하겠지만, 창의성과 독창성이 보다 친분 관계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쉽게 수긍이 된다. 창의성이 뛰어난 예술가가 여전히 무명으로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작품이 주는 감동은 결코 예술가의 이름에 달려있지 않다. 미술관에서 우연히 마주한 알지 못했던 작가의 작품

에 눈물을 흘렸다는 경험담은 흔히 듣는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나에게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 즉 도시나 기업이 예술가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에 기인한 하나의 사회 현실일 뿐, 예술 자체와는 상관 없는 일이다. 그들은 그저 예술가의 이름을 소비할 뿐이다. 예술가가 유명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유명한 예술가만을 주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예술가의 이름이 사회에서 그저 자본 증식이나 경제 활성화 등에 이용되거나, 작품의 의미가 아닌 유명한 예술가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거나, 자신의 안목을 믿지 못하고 잘 알려진 예술가의 작품만을 찾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예술가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가를 찾고 알아가는 기쁨을 느껴야 할 바란다.

사설

넘쳐나는 상춘객... 벌써 코로나19 잊었나

최근 봄꽃 만개시즌을 맞아 넘쳐나는 상춘객들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도 방역당국이 방문자제 요청과 상황실 운영 등의 긴급 대책에 나섰지만 곳곳에 상춘객 행렬 만원사레다. 봄철 활동량이 늘고, 방역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위기 속에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400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을 긴박한 결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정부의 조치에서도 확인된다. 3월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 27일 기준 76만8600명으로 작년 같은기간 43만100명에 비해 무려 78% 급증했다. 이달 중순이후 하루 3만명 이상 제주를 찾아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주말에는 평균 3만5000여명에 달했다. 도가 대표적 봄축제인 왕벚꽃축제 정보리축제 유채꽃축제 등을 취소했음에도 상춘객들로 넘쳐난다. 관광객만이 아닌 도민들

도 상춘객 행렬에 가세해 더 걱정이다. 도심지 주요 벚꽃 명소마다 인파들로 붐비면서 방역당국의 상황실 운영, 자치경찰의 방역 순찰활동 등에 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다. 도민·관광객들은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400명 내외를 여전히 보이고, 도내에서도 지난 26일 2명과 28일 1명 등 소규모 감염사례들로 울퉁불퉁한 202명의 신규 확진을 기록중이다. 상춘객 행렬의 위험은 불특정 다수에 의한 특정 장소 몰림으로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다. 각자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대한 상춘객으로의 '이동자제'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제주가 조기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되려면 모두 다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상춘객 현장관리 재점검도 예외일 수 없다.

공포의 팽생이모자반, 근본대책 마련해야

제주섬이 해조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다의 불청객인 팽생이모자반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한햇동안 제주해안을 덮친 양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것도 1.5배 이상 많은 양으로 제주로 밀려들 수 있는 팽생이모자반이 엄청날 수 있다는 점이다. 팽생이모자반이 제주바다에 재앙으로 닥칠 수 있어 걱정스럽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관리원에 따르면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대규모 부유성 팽생이모자반이 관측되고 있다. 지난 14일과 21일 미국 위성의 영상자료 분석 결과 흑산도 서쪽에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 걸쳐 약 200만~500만t의 팽생이모자반이 분포된 것이 확인됐다. 해당 팽생이모자반은 대기가 불안정한 환경기에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팽생이모자반의 유입시기가 유독 빨랐다. 지난달 21일까지 제주에 유입된 팽생이모자반은

8100t에 이른다. 지난해 한햇동안 수거된 5186t을 훌쩍 뛰어넘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대규모의 팽생이모자반이 제주바다를 덮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예전에 3월 말에서 6월 사이 동중국해에 분포하던 대규모 해조류 군락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된 사례도 있어 더욱 우려된다. 국립수산물관리원의 관측대로 동중국해에 떠다니는 팽생이모자반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경우 큰 일이다. 그 양이 적잖아서 그렇다. 포획된 팽생이모자반 가운데 1%만 제주로 유입돼도 2만~5만t에 달하는 양이다. 현재 1만t도 안되는 양도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하물며 이보다 몇배 많은 팽생이모자반이 제주바다로 들어닥치면 심각한 처리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팽생이모자반의 처리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팽생이모자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환경을 살리는 4GO



변정미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배달앱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달음식으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너무 과한 포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생활폐기물들을 어떻게 자원화하여 재사용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이에 오라동에서는 2019년부터 마을 곳곳 쪼파리 공간에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여해 버려지는 폐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업사이클링 공원으로 바꾸어 폐자원을 선순환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계곡과 숲길, 오토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

는 도심 속 전원마을인 오라동을 더욱 아름답고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상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4Go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비우go(용기안에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행구go(재활용품에 묻어 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한번 행귀서 배출), 분리하go(라벨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섞지말go(종류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여 배출) 실천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자생단체 등과 점점반을 편성하여 주2회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올바른 분리 배출,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환경 실천운동(4GO)에 동참하겠다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참여자에게 꽃(다육이 식물)을 식재한 업사이클링 화분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대로 알고 버리면 자원이 되는 폐기물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약속을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스-in

“제주형 그린뉴딜 동력으로 미래 선도”

원 지사, 경제 활력화 주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내 공직자들에게 “제주형 그린뉴딜을 동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 경제 활력화, 도내 산업구조 개선 등 대전환 시기에 대한민국 뉴딜을 선도해달라”고 주문. 원 지사는 29일 열린 중간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형 뉴딜 대표 사업 발굴 상황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언급. 원 지사는 “제주형 그린뉴딜이 하나씩 사업화될 때 1년, 5년, 10년, 20년 뒤 새로운 사업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장기적인 비전과 책임감을 갖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 이상민기자

현재 농협은행 서울본부 감사부에서 감사를 진행중인데, 대출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

농협 내부에선 “금융권에서 간혹 대출사고가 발생하곤 하지만 이번 건은 사고금액이나 사고발생기간이 2년여에 걸쳐 이뤄져 당혹스럽다”고 전언. 문미숙기자

동문시장 야시장 4월 초 운영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며 새로운 먹거리 명소가 부상하고 있는 동문재시장 야시장 운영과 관련한 협약식이 29일 시청에서 열려 내달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 야시장은 그동안 32명의 매대운영자를 최종 선정하는데 이어 이날 열린 제주시와 동문재시장 상인회간 협약을 통해 먹거리와 쇼핑이 어우러진 관광명소가 육성을 다짐. 시 관계자는 “야시장이 새로운 운영자 입점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변 시장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이윤형기자

농협 “대출사고 당혹스럽다”

○...제주도내 한 농협은행 직원이 가족 등의 자산을 담보로 부당하게 대출받아 횡령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확인됐는데, 금융사고금액이 25억원에 달하며 농협 내부에서도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

부고

김안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아버지 김해김공 장길(향년 84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29일 11시경에 별세하시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3월 31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4월 1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제3분향소 ▶장 지: 양지공원

부인 김정인 아들 김안병 며느리 고경희 영선 고미영 딸 김국향 사위 이상언 ※ 연락처 : 김안병 010-8761-3417 김영선 010-9077-4774 김국향 010-3692-3417 이상언 010-4562-326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의순(향년 9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30일

아들 고승훈 며느리 이인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공시

• 사건번호 2014고합94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피고인 1. 이성희, 2. 박기훈, 3. 오승진, 4. 김민호, 5. 명현영, 6. 강유찬, 7. 오명오, 8. 박진환, 9. 신보식, 10. 김경호, 11. 전경택 위 피고인들은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공시함. 2021. 3. 30. 재판장 판사 장 찬 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서귀포시정소식 치유식물 나눔행사 알림 ○ 일시 : 2021. 4. 11(일) 09:00~15:00 ○ 행사장소 : 강창학종합경기장 / 읍면지역 자체 선정 ○ 수종/수량 : 허브류 5종(라벤더, 로즈마리 등) / 32,000본 ○ 배부방법 : 현장 선착순 1인 3본 / 드라이브스루 배부 ※ 목목 소진시 조기종료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 760-3041 서귀포in정 입점(체험관광) 공개 모집 알림 ○ 모집기간 : 2021. 3. 26. ~ 4. 11. ○ 모집대상 : 서귀포시에서 체험관광업을 운영하거나 해당산품을 판매하는 자(업체, 단체 등) ○ 접수방법 : 이메일(jeongh2022@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입점 신청서 1부, 통신 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진 5~10장 (상세페이지 제작)정도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갈굴농정과 ☎ 760-2883, 2884